

# Focus

## '21년 1분기 6대 전략광물 시장전망

\* 본 자료는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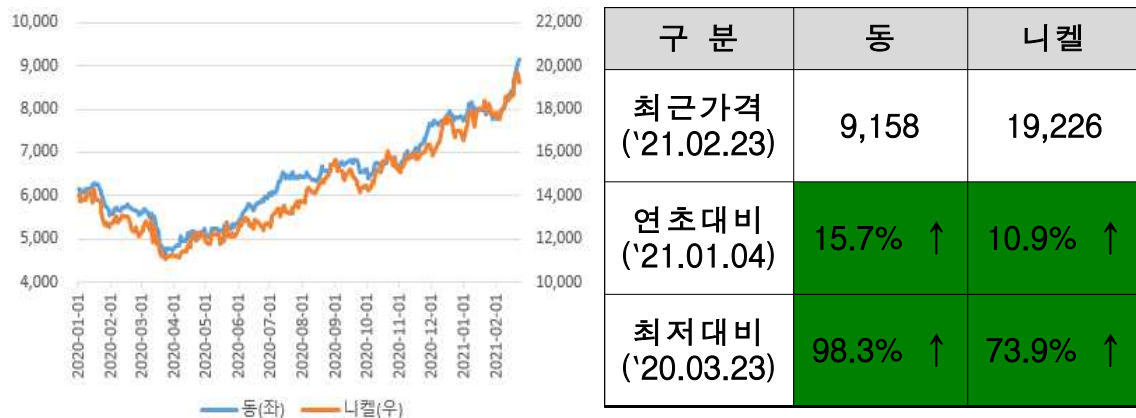
### 요 약

- ▶ 작년 1분기 코로나 19 수요충격으로 광물 자원 시장은 하방리스크에 직면하였으나, 이후 미·중 대국경제의 경기부양책과 미 달러약세 효과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강한 가격반등이 나타남
- ▶ 향후 미달러약세, 중국의 경기개선 및 그린뉴딜 등 신규 산업수요가 핵심광물 자원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철광석과 유연탄 등 개별광종의 수급편더멘탈 요소가 가격추세를 좌우할 전망이다
  - 동은 미달러약세 및 중국의 인프라 확대정책에 힘입어 상승압력이 발생한 가운데 칠레, 페루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공급충격이 발생하여 가격상승세가 예상됨 다만 '22년 이후 Cobre Panama 등 대형광산의 공급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니켈은 중국의 산업경기 개선에 따른 스테인리스 생산확대 및 전기차 배터리산업의 낙관적 전망에 힘입어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인니의 원광수출 금지, 필리핀의 환경규제 지속 등으로 중국 니켈선철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상승압력이 심화될 전망이다
- 아연은 공급과잉적 편더멘탈로 인해 타광종 대비 상승압력이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과 니켈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 전망
- 철광석은 작년 2분기 이후 미·중 경기부양책과 달러약세와 함께 브라질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공급충격으로 가격상승압력이 심화됨 그러나 '21년 이후에는 코로나 백신상용화 확대에 따른 광산공급 재개 및 Vale사 등 메이저의 자원가 증산전략으로 비철금속과 다르게 하방리스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유연탄은 전 세계적 저탄소 에너지경제로의 전환기조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확대되면서 연료탄 수요가 둔화될 수 있고, 중국의 해외탄 수입규제정책으로 하방압력에 직면할 전망이다
- 우라늄은 작년 3월 메이저 Cameco사, Kazatomprom사 등의 감산정책에 힘입어 큰 폭의 가격상승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공급과잉 과다채고 등 편더멘탈적 제약으로 재차 하방압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달러약세 및 그린뉴딜 기대에 따른 자원가격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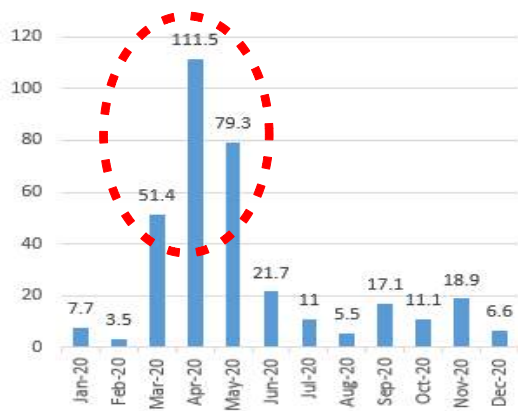
최근 자원시장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미국과 중국 등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저금리에서 비롯된 미달러약세로 인해 전반적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초 코로나 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경기침체가 발생했으나, 이후 미연준은 제로금리, 양적완화 등 강력한 통화정책을 추진했으며, 중국과 미국정부도 인프라 확대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총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최근 동, 니켈 가격추이 (단위: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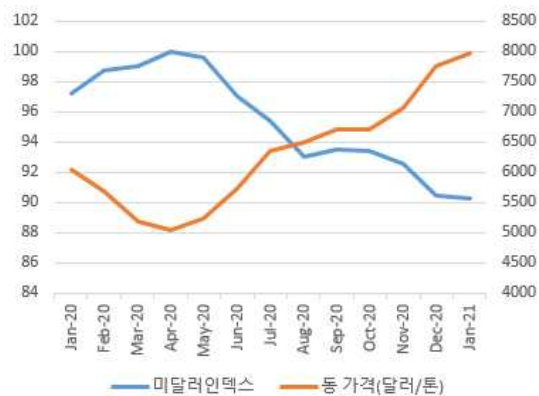


이에따라 작년 2분기부터 전반적인 자원가격들이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최근에는 산업경기 선행지표인 동 가격이 톤당 9천달러를 돌파하여 '11년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언급되는 등 시장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니켈가격도 톤당 2만달러에 근접하면서 연초 대비 10%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동과의 가격변동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의 자원소비가 부상하고 있어 동,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광물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자원은 위험자산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의 국채수익률이 오르면서 하방리스크에 자주 노출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와 광종별 공급트렌드 또한 시장전망에 있어서 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시장의 주요 변수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미달러가치는 미국의 제로금리 및 채권매입정책이 계속되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경기가 코로나 19 충격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 19 확산시점인 작년 3월에 기준금리를 제로수준으로 인하시켰으며, 채권매입 등의 양적완화 정책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통화량(M2)은 3월 51.4%, 4월 111.5%, 5월 79.3%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미달러가치는 작년 3월평균 99.0에서 금년 1월 90.23까지 8.9%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의 투자선호를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 1년간 전기동과 미달러인덱스의 상관관계수 절대값은 0.976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미달러약세가 전기동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 통화량(M2) 증가율(% 전기대비 연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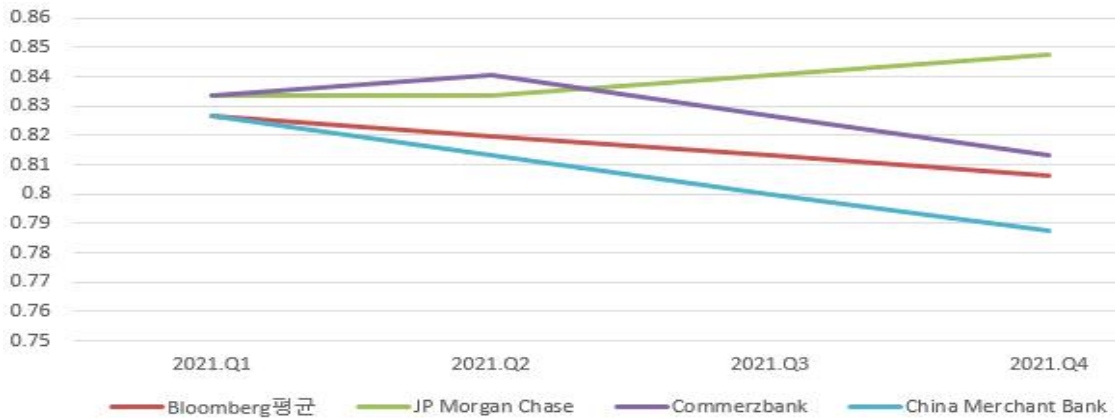
<미달러인덱스와 동 가격 추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2021년 미달러가치 전망치를 살펴보면 다수의 기관들이 금년 달러가치 하락세를 예상했으나, JP Morgan 사는 금년 하반기부터 미달러가치의 반등을 전망하고 있다. Bloomberg의 유로화/달러화 평균전망치는 지속적인 하락세로 금년 4분기 0.8065로 전년동기대비 3.8%의 하락세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미연준의 양적완화 지속<sup>2)</sup>에 따른 미달러가치 하락세는 자원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작년 3~5월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해야 하며, 미국채의 수익률 상승이 상기 미달러가치 하방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자료원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1년1월호, 통계정보

2) 미연준은 1월 FOMC 회의결과 제로금리를 동결하고 매일 1,2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함

<주요 기관들의 미달러가치(유로화/달러화) 전망추이3>



다음으로 자원 최대소비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측면을 살펴보면, 작년 1분기 중국의 GDP성장률은 코로나 소비충격으로 -6.8%로 집계 이래 사상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분기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경제활동의 재개 및 중국정부의 인프라 확대정책에 힘입어 산업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결과 작년 4분기 중국의 GDP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로 전망치를 상회하였고, '2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2.3% 증가로 타국가와는 대조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전상황으로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기관들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4>

구 분	'21년	'22년	'23년
Bloomberg 평균치	8.4	5.4	5.3
JP Morgan Chase	9.4	5.6	-
Standard Chartered	8.0	5.6	-
Citigroup	8.2	5.5	-

Bloomberg통신에 따르면 금년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코로나 소비충격의 기저 효과 및 인프라 확대정책에 힘입어 8~9%대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었고, 특히

3) 자료원 : Bloomberg통신 2021년2월23일기준

4) 자료원 : Bloomberg통신('21년 2월23일 기준)

JP Morgan사는 금년 9.4%, 내년 5.6%대의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다만, 2000년대 제조업/수출중심의 중국 경제가 서비스/내수중심으로 성장동력이 전환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자원소비 유발효과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위험자산인 자원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달러가치는 미연준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이 금년에도 유지될 수 있고, 최근 바이든 정부는 1.9조 달러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달러가치의 하락세가 예상된다. 다만, 통화량 증가율이 작년 2분기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유동성 확장세는 부분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국경제는 인프라 확대정책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작년 코로나 소비충격으로부터 점차 벗어나면서 금년 8%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므로 자원소비를 크게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Ⅰ 광종별 시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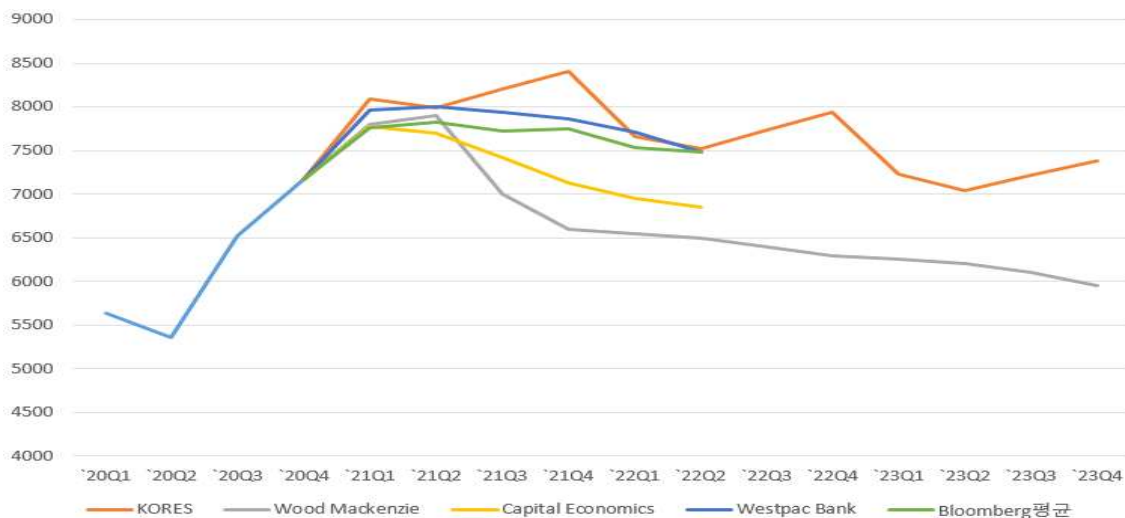
(1) 동은 수요측면에서 중국의 산업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 및 미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확대가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공급측면에서 세계 1, 2위 생산국인 칠레, 페루의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공급충격<sup>5)</sup>과 맞물리면서 상승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의 신장세로 기본 원료가 되는 동의 수급상황이 점차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거래소인(LME, SHFE, CME)의 동 재고량 합계가 '08년 9월이후 12년4개월내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재고량이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은 백워데이션도 상당기간 유지되고 있다. 이에따라 1월평균 전기동 가격은 톤당 7,971달러로 '13년이후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2월23일현재 톤당 9천달러도 돌파하면서 '11년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5)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칠레의 12월 동 생산량은 499,70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9.4% 감소했으며, 국영기업 Codelco사의 12월 동 생산량도 157,80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함. 같은기간 페루의 동 생산량은 221,98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세임

또한 S&P Global사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상용화 확대로 미국, 유럽 등의 소비회 복에 힘입어 '21년 전기동 소비는 25,936천톤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고, 같은 기간 전기동 공급은 25,759천톤으로 전년대비 4.5% 증가에 그치면서 공급부족 177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광산 공급측면에서 코로나 확산세 둔화로 남미지역 광산생산의 정상화 및 신규/확장 프로젝트의 개발 본격화로 광산공급 확대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기 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금년 동 광산생산은 BHP사의 칠레 Spence광산의 확장사업, 인니 Grasberg광산의 갱내채굴 전환, 페루 Mina Justa 생산개시 및 Toromocho광산의 확장 프로젝트 추진으로 동 광산생산이 전년대비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2년에는 Quellaveco 신규 프로젝트의 생산개시, '23년에는 Oyu Tolgoi 확장 프로젝트가 생산량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First Quantum사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20년 동 생산량이 779천톤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하며 자사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주력광산(flagship mine)인 파나마 Cobre Panama와 잠비아 Sentinel의 증산전망에 힘입어 '21년 동 생산량이 전년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별 전기동 가격전망 추이>



6) 최근 몽골정부는 Oyu Tolgoi 확장프로젝트의 개발비용이 당초 67.5억달러 규모였으나, 초과비용 발생으로 정부이익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프로젝트 계약해지를 Rio Tinto사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짐

공사의 전기동 가격예측 모델은 중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미달러화 가치인 유로/달러 환율, 전기동 소비량 및 공급량 등이 포함되어 운용되고 있다. 주요 전망 기관과의 비교분석 결과는 '21년까지는 미달러가치 하락세 및 중국 수요회복에 힘입어 분기평균 톤당 8천달러 후반선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2년 이후 칠레 Chuquicamata, El Teniente, 몽골 Oyu Tolgoi, 호주 Olympic Dam 등 대형 노후광산들의 확장 프로젝트와 파나마 Cobre Panama 등 신규 프로젝트 정상생산 진입효과로 수급측면에서 하방압력을 재차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KORES ('21. 2. 25)	Wood Mackenzie ('21. 1월호)	Capital Economics ('21. 2. 15)	Westpac Banking ('21. 2. 5)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1. 2. 15)
2021Q1	8,094	7,800	7,775	7,967	7,764
2021Q2	7,989	7,900	7,700	8,000	7,823
2021Q3	8,210	7,000	7,425	7,933	7,729
2021Q4	8,408	6,600	7,125	7,867	7,751
2022Q1	7,658	6,550	6,950	7,705	7,531
2022Q2	7,523	6,500	6,850	7,485	7,487
2022Q3	7,741	6,400			
2022Q4	7,934	6,300			
2023Q1	7,226	6,250			
2023Q2	7,038	6,200			
2023Q3	7,222	6,100			
2023Q4	7,383	5,950			

(2) 니켈의 경우 작년 1분기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중국의 스테인리스 산업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요충격에 직면하였으나,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실시로 상승모멘텀을 확보하였고, 현재 소비비중은 낮지만 기대수요 측면에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미달러약세에 힘입어 니켈가격은 작년 2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금년 1월 평균 니켈가격은 톤당 17,848달러로 전월대비 6.2% 상승했으며, 2월23일 현재 니켈가격은 톤당 19,226달러로 2만달러에 근접해 가고 있다.

중국의 '20년 니켈소비는 코로나 확산이후 인프라 건설중심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추진된 가운데 타국가 대비 경제활동 재개가 빠른 시점에 가능해지면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으며, '21년 중국의 니켈소비는 전자제품 등 소비재 중심의 경기회복과 신규 스테인리스 생산시설 증설로 인해 전년대비 5.6%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1년 세계 니켈소비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25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20년 중국의 니켈선철(NPI) 생산량이 505천톤으로 인니산 원광수출의 금지로 원재료 수급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전년대비 16.4%로 크게 감소하였고, 필리핀의 환경규제 강화, 뉴칼레도니아의 정치적 소요사태로 공급차질 우려가 심화되면서 상승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S&P사에 따르면 '21년 세계 니켈 공급량은 260만톤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면서 소비증가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페로니켈, 정련니켈 제련시설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시차(time lag)의 제약, 인니의 니켈원광 수출금지에 따른 중국의 니켈선철(NPI)의 원재료 수급차질로 인해 공급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Tawi-Tawi주 Tumbagaan섬의 광업활동을 모두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으며, Eramet사의 뉴칼레도니아 SLN은 정치적 시위가 격화되면서 생산차질이 지속됨에 따라 부도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기 니켈소비와 공급전망치를 종합해보면 금년 니켈시장은 작년보다 공급과잉분이 76,000톤 가량 감소하면서 공급과잉 5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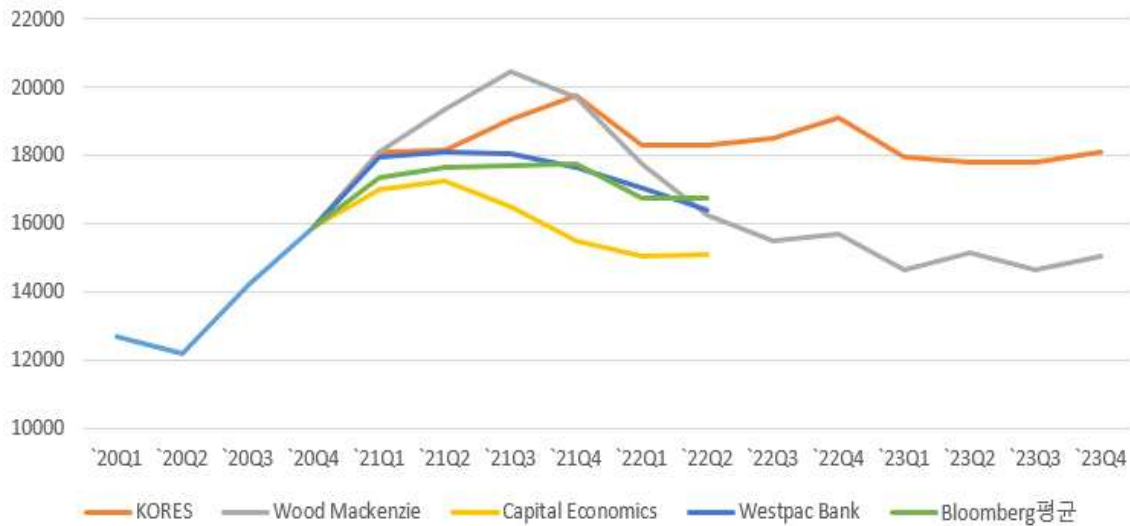
따라서 니켈가격은 중국의 스테인리스 및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 및 미달러 약세효과로 상승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의 니켈원광 재고량의 급격한 감소세가 부각되면서<sup>8)</sup> 니켈선철 산업의 생산차질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니켈가격은 금년 3분기 이후 단기적으로 톤당 19,0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22년 하반기 이후 인니의 니켈선철, 페로니켈 제련소의 정상생산 진입으로 공급확대에 따른 하방압력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자료원 :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Nickel"

8) 중국 주요항구의 1월평균 니켈원광 재고량은 956만톤으로 전월대비 8.8%, 전년동월대비 43.1% 급감하면서 니켈선철(NPI) 생산의 원재료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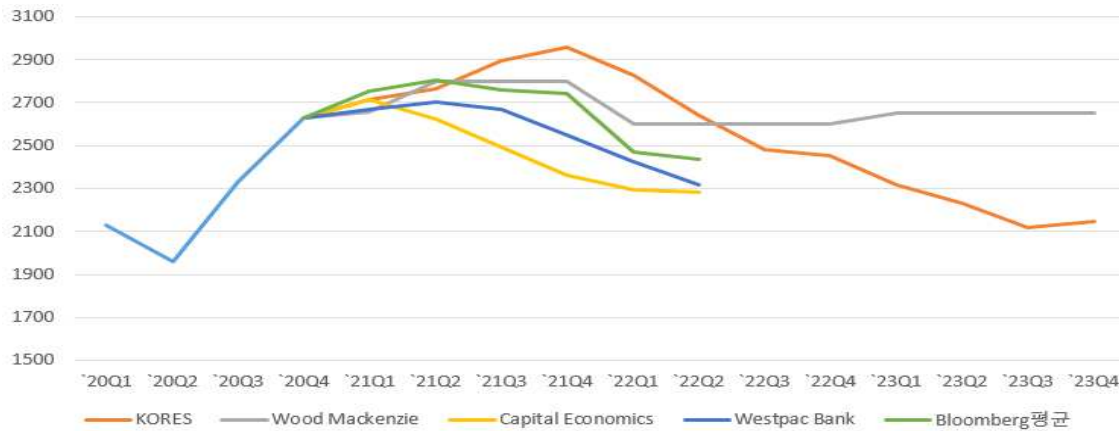
<주요 기관별 니켈 가격전망 추이>



구분	KORES ('21. 2. 25)	Wood Mackenzie ('21. 1월호)	Capital Economics ('21. 2. 15)	Westpac Banking ('21. 2. 5)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1. 2. 15)
2021Q1	18,099	18,118	17,027	17,933	17,339
2021Q2	18,157	19,364	17,250	18,133	17,660
2021Q3	19,046	20,466	16,500	18,067	17,721
2021Q4	19,751	19,695	15,500	17,667	17,733
2022Q1	18,295	17,747	15,050	17,068	16,780
2022Q2	18,291	16,241	15,125	16,420	16,761
2022Q3	18,507	15,506			
2022Q4	19,117	15,726			
2023Q1	17,942	14,661			
2023Q2	17,808	15,175			
2023Q3	17,801	14,661			
2023Q4	18,099	15,065			

(3) 아연의 경우 작년 1분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소비감소 충격으로 하방리스크가 발생하였으나, 2분기 이후 미연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미달러가치 하락세 및 중국의 인프라 확대정책에 따라 아연가격은 상승세로 추세를 전환하였다. 다만, 동과 니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공급과잉과 재고량 증가<sup>9)</sup>로 인해 가격상승압력은 상당부분 제약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평균 아연가격은 2,708달러로 전월대비로는 2.7%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4.9%의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주요 기관별 아연 가격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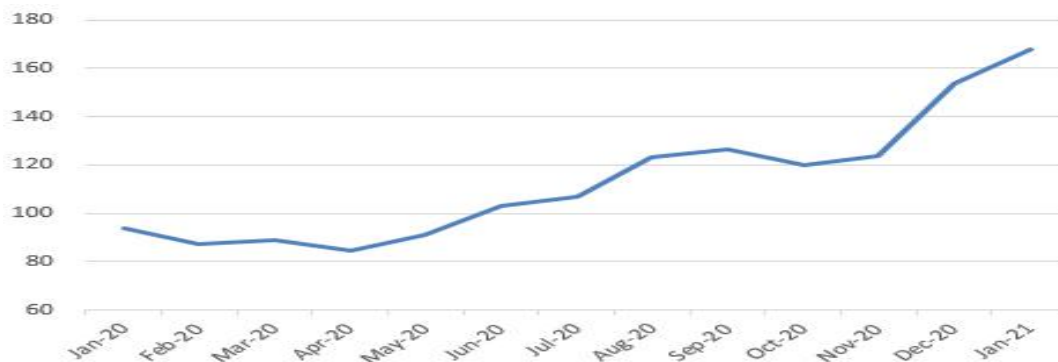
Wood Mackenzie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소비충격 여파로 '20년 정련아연의 소비량은 13,101천톤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하였고, 같은기간 정련아연의 공급량은 13,648천톤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면서 공급과잉(547천톤)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의 경우 미달러약세 및 중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정련아연의 소비량이 13,619천톤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하면서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공급량은 전년대비 1.9%에 그치면서 공급과잉분이 258천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련아연 가격은 중국의 경기개선 및 미달러화 약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과 과다재고의 펀더멘털 제약으로 인해 동, 니켈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연가격은 '21년4분기 톤당 2,9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22년부터 하방압력이 발생하면서 톤당 2,000달러 초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9) 1월말 LME 아연재고량은 29만3,800톤으로 전월말대비 45.3%로 크게 증가함

구분	KORES (‘21. 2. 25)	Wood Mackenzie (‘21. 1월호)	Capital Economics (‘21. 2. 15)	Westpac Banking (‘21. 2. 5)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1. 2. 15)
2021Q1	2,712	2,655	2,715	2,667	2,755
2021Q2	2,763	2,800	2,625	2,700	2,807
2021Q3	2,896	2,800	2,490	2,667	2,758
2021Q4	2,960	2,800	2,365	2,550	2,741
2022Q1	2,829	2,600	2,295	2,426	2,468
2022Q2	2,641	2,600	2,285	2,315	2,438
2022Q3	2,481	2,600			
2022Q4	2,456	2,600			
2023Q1	2,319	2,650			
2023Q2	2,232	2,650			
2023Q3	2,118	2,650			
2023Q4	2,149	2,650			

(4) 철광석도 '20년1월중순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철강산업의 경기부진 우려가 심화되면서 수요충격에 직면하였으나, 이후 중국의 인프라 확대정책에 따른 철강산업 경기개선 및 미달러약세로 철광석 투자수요가 개선되면서 철광석 가격은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중국은 '20년 철광석 수입량이 11.7억톤으로 '17년 사상최고치였던 10.8억톤을 상회하면서 철광석 소비를 견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주요 생산국인 호주와 브라질의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S11D등 Vale사 대형광산들의 생산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급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작년 철광석 가격은 타광종 대비 가격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금년에도 1월평균 철광석 가격도 톤당 168달러로 전월대비 9.2%, 전년동월대비 79.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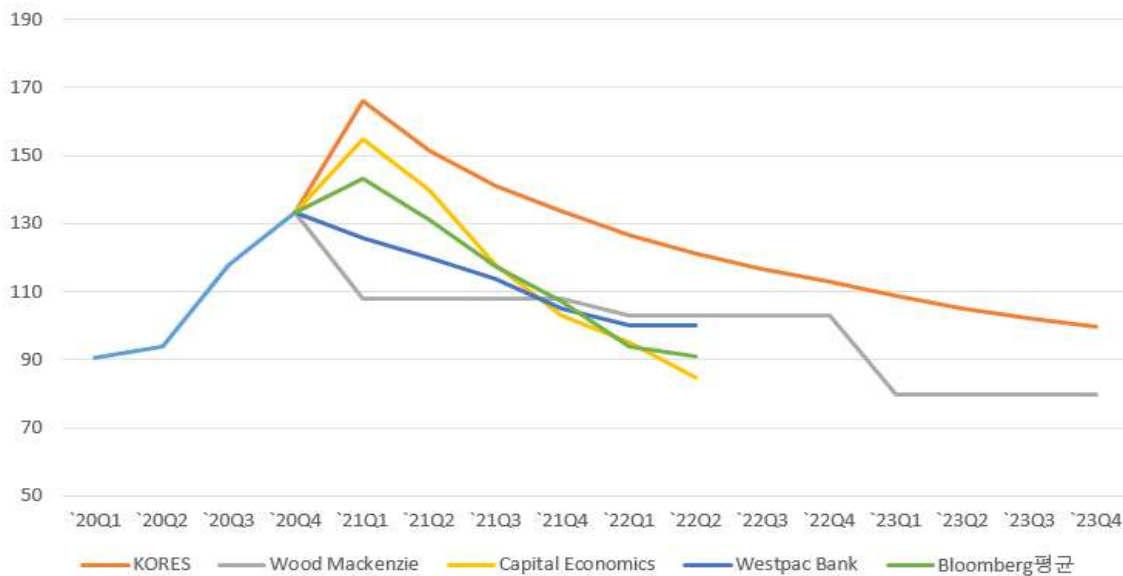
#### <최근 철광석 월간가격 추이>



향후 철광석 시장은 수요측면에서 중국의 경기회복과 미달러약세 효과로 상승요인이 내재중이나, 중국 정부가 '21년 철강부문의 신규 증설 제한 및 M&A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 생산능력 감산정책을 수립하여 환경보호 및 철강산업 합리화 추진계획을 감안하면 가격상승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허베이성 탕산시의 대기오염 방지책으로 일부 철강업체들의 생산설비 가동 중단 및 전로 이용 제한 등이 발생<sup>10)</sup>하고 있는 점도 중국의 철광석 수입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호주와 브라질의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될 경우 기존 대형 철광산들의 정상생산 재개 및 철광석 가격상승에 기반한 중국 중소형 광산들의 시장재진입 확산으로 가격하방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메이저 Vale, Rio Tinto, BHP사 등 메이저의 대형 철광산을 중심으로 한 저원가 증산전략으로 중장기적 하방압력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따라 철광석 가격은 하락추세를 형성하여 '22년이후 톤당 100달러 초반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별 철광석 가격<sup>11)</sup>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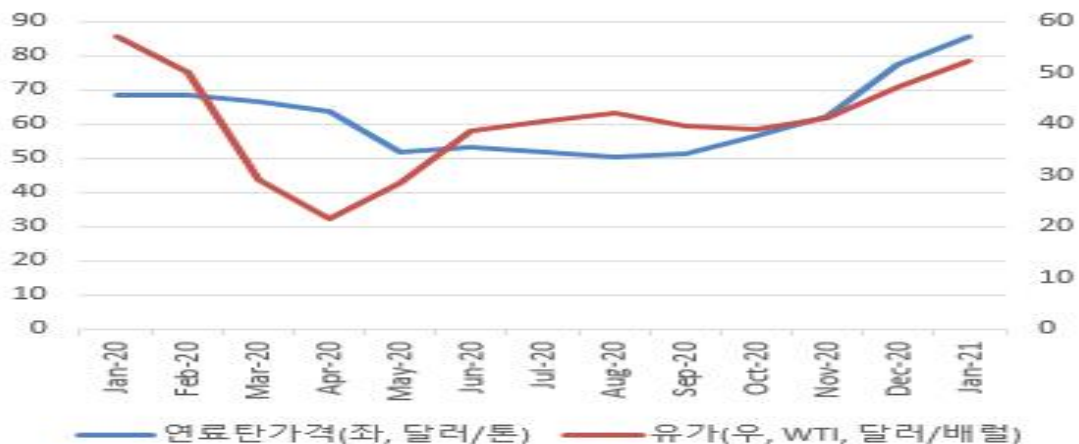
10) 자료원 : 한국광물자원공사 월간자원 인사이트 2월호 "철광석"

11) 기준/단위 : 62% 철광석 분광, 중국 주요항 CFR기준 / 달러/톤

구분	KORES (‘21. 2. 25)	Wood Mackenzie (‘21. 1월호)	Capital Economics (‘21. 2. 15)	Westpac Banking (‘21. 2. 5)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1. 2. 15)
2021Q1	165.94	108	155	126	143.25
2021Q2	151.63	108	140	120	131.25
2021Q3	141.19	108	118	114	117.50
2021Q4	133.58	108	103	105	107.25
2022Q1	126.75	103	95	100	94.00
2022Q2	121.25	103	85	100	91.00
2022Q3	116.79	103			
2022Q4	113.15	103			
2023Q1	108.79	80			
2023Q2	105.23	80			
2023Q3	102.32	80			
2023Q4	99.92	80			

(5) 에너지원 중 하나인 유연탄<sup>12)</sup>은 작년 1분기 코로나 19 소비충격에 따른 주요국 발전수요 둔화 및 국제유가 폭락에 따라 하방압력이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2분기에도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가 호주와의 정치적 갈등에 따른 무역분쟁으로 5대 국영 발전소에 대한 호주산 연료탄 수입규제를 추진함에 따라 수요둔화 우려로 하방압력이 심화되었다.

<최근 연료탄과 국제원유(WTI) 월간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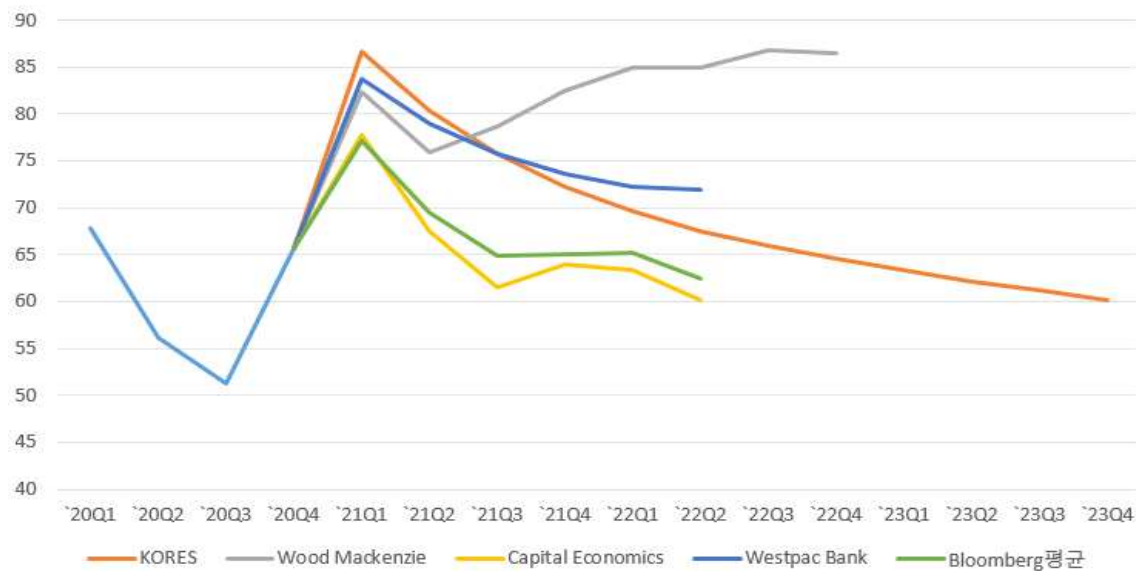


12) 가격기준 : 6,300kcal/kg 호주 뉴캐슬산 FOB기준

그러나 '20년3분기 이후 연료탄 가격은 유가반등과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공급차질로 인해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으며, 동절기를 거치면서 발전수요 확대에 의해 가격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연료탄 가격은 1월평균 톤당 85달러로 전월대비 10.5%, 전년동월대비 24.7%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며, Morgan Stanley사는 미국이 '33년에는 석탄발전이 퇴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13)</sup>. 이로 인해 연료탄 수요가 하방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도, 베트남 등의 신흥 개도국의 연료탄 신규수요 확대 및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발전수요 회복세가 상기 하방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연료탄 가격은 금년 상반기의 톤당 80달러선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국제유가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별 유연탄<sup>14)</sup> 가격전망 추이>



13) 자료원 : 한국광물자원공사 월간자원인사이트 2월호 "유연탄"

14) 기준/단위 : 호주 뉴캐슬산 6,300kcal/kg, FOB기준 / 달러/톤

구분	KORES ('21. 2. 25)	Wood Mackenzie ('21. 1월호)	Capital Economics ('21. 2. 15)	Westpac Banking ('21. 2. 5)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1. 2. 15)
2021Q1	86.60	82.41	77.75	83.70	77.15
2021Q2	80.36	75.89	67.50	79.00	69.50
2021Q3	75.72	78.65	61.50	75.70	64.90
2021Q4	72.28	82.53	64.00	73.70	65.07
2022Q1	69.67	85.02	63.38	72.30	65.23
2022Q2	67.53	84.89	60.13	72.00	62.38
2022Q3	65.96	86.80			
2022Q4	64.60	86.55			
2023Q1	63.32				
2023Q2	62.19				
2023Q3	61.16				
2023Q4	60.22				

(6) **우라늄의 경우** '11년 후쿠시마 사태이후 공급과잉 및 과다재고가 발생하면서 하방압력이 우세하였으나, 작년 3월이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우라늄 광산생산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상승압력이 발생하였다. 작년 3월말 메이저 Cameco사의 세계 1위 광산인 Cigar Lake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우라늄 가격지지를 위한 카자흐스탄 Kazatomprom사의 연간 18% 규모의 감산발표로 우라늄 가격은 3월 파운드당 24.7달러에서 5월 33.9달러까지 37.2%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Cigar Lake광산의 가동재개 등 광산공급의 정상화 등으로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파운드당 30달러선에서 박스권 횡보를 반복하고 있다.

향후 우라늄 가격은 일본의 원전재가동 정책부진과 미국, 유럽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전망에 따라 수요측면의 하방리스크 우세로 시장의 과다재고는 상당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우라늄 가격은 하방압력을 재차 받으면서 파운드당 30달러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라늄 가격전망(달러/파운드) 추이>



구분	KORES ('21. 2. 25)	선도가격 ('21. 2. 23)
2021Q1	30.00	33.57
2021Q2	29.78	33.90
2021Q3	29.52	30.64
2021Q4	29.24	34.73
2022Q1	28.92	35.18
2022Q2	28.58	35.57
2022Q3	28.22	
2022Q4	27.82	
2023Q1	27.41	
2023Q2	26.98	
2023Q3	26.52	
2023Q4	26.05	